DBpia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 유형과 성 고정관념

The Study on the Gender Role Identity & Sex Stereotypes of College Students

저자
(Authors)
남승희, 김명애
Nam Seung-Hee, Kim Myung-Ae

출처
(Source)
성인간호학회지 17(4), 2005.9, 561-572 (12 page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17(4), 2005.9, 561-572 (12 pages)

발행처
(Publisher)
성인간호학회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1548754

APA Style
남승희, 김명애 (2005).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 유형과 성 고정관념. 성인간호학회지, 17(4), 561-572.

이용정보
(Accessed)
계명대학교
220.69.112.22
2016/03/17 10:22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주요용어 : 성역할, 성정체감, 대학생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 유형과 성 고정관념*

남 승 희**·김 명 애***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의 성(gender)은 스스로를 여성 혹은 남성으로서 어떻게 인식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한 통합적 차원으로서, 구체적인 성행위와 정체감이라는 두 측면을 가지며, 이들은 서로 상호 작용하여 성적 평형을 유지함으로써 성적 안위를 가져온다(Citron & Kartman, 1982). 성정체감(gender identity)은 인간이 주관적으로 자신을 남성 혹은 여성으로 지각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성에 대한 지각에서 도출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감각으로 정의되고 있다(Harffner, 1994). 성정체감이 외부로 도출되어 나타난 공식적 표현을 성역할(gender role)이라 하며(Money & Erhardt, 1972), 이는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성에 기대되는 사회적 행동양식을 말한다. 성역할의 구분은 남녀의 생물학적 성(sex)에 바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성역할은 생물학적 개념이 아니라 문화적인 것으로 사회적 성(gender)과 관련된다(Shim, 1991).

성역할정체감(gender role identity)은 일종의 성역할 자아개념에 가까운 것으로 자신이 얼마나 남성성 또는 여성성을 지녔다고 보는가(Kagan, 1964)이다. 이것은 그 사회에서 특정한 성별에 대해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고정 관념화된 기준을 개인이 내면화시킨 정도로, 개인의 성별 특징적 행동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Jang, 1999). 성역할정체감은 그 근원을 유아기에 발달하는 성정체감(gender identity)에 두어 '나는 남자이다' 혹은 '나는 여자이다'라는 생물학적 성의 인식과 수용으로부터 시작되며 성역할 발달의 결과로서 자기지각이 증대되는 아동 후기 및 청소년기에 이르러 구체화되기 시작한다(Yoo, 1994).

청소년 후기에 있는 대학생들은 신체적으로는 생식기관이 성숙단계에 이르고 정신적으로는 인지발달로 자신의 실체를 살펴보고, 자신이 처해 있는 세계와 성의 의미를 통해 자신이 택할 성인으로의 역할이나 개성을 신장시키려는 생애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시기이다. 이들이 직접, 간접으로 경험하며 인식하고 있는 성에 대한 생각과 의미는 대학 졸업 후 취업, 결혼 등을 통해 사회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성역할 갈등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Yang & Jung, 2002). 성역할정체감은 청년기의 정체감 형성에 있어 중요한 일부가 되며, 청년기와 성인초기의 대학생의 적응과 관련되므로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이 논문은 계명대학교 대학원 학생 학술연구 장학금에 의해 연구되었음.
**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대학원 석사과정(교신저자 E-mail: namsei79@yahoo.co.kr)
***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투고일 2005년 4월 13일 심사의뢰일 2005년 4월 15일 심사완료일 2005년 6월 27일

계명대학교 | IP: 220.69.112.22 | Accessed 2016/03/17 10:22(KST)

성역할정체감이 개인에게 성역할 사회화의 과정에서 생물학적 성 외에 자신의 고유한 심리적 특성에 적합한 성역할을 내재화한 개념이라면, 성 고정관념은 사회적으로 고정화된 성역할 정형화(sex role typing)이다(Chae, 1999). 고정관념(stereotype)이란 특정한 인간 집단에 대해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지니는 상대적으로 경직되고 과잉 단순화된 관념을 가리키며 이 개념에는 바로 이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획일적이고 동질적인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견해가 포함된다(Kim, 1993). 특히 많은 사람들이 성에 따라 다르다고 믿고 있는 전형적인 특성을 성역할 고정관념이라고 한다. 이는 사회문화의 기대를 전수하는 역할도 하지만, 경직되고 단순화된 시각으로 남성과 여성의 특성과 역할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이 제한되고, 융통성 없고, 적절하지 않은 반응을 하는 등 개인의 자유로운 사고와 활동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Park, 2000). 또한 잘못된 성 고정관념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대개는 사회화 과정 속에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져 계속 재생산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빠른 시기에 이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역할정체감과 성 고정관념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도 초, 중, 고등학생(Yoo, 1994; Chae, 1999; Lee, 2001)과 대학생(Cho, 1986; Tak, 1995; Park, Kim, & Park, 1998; Park, 2000)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성역할정체감 유형과 성 고정관념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양성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가장 완화된 성역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Kelly & Worrel, 1977; Bem, 1981; Cho, 1986; Lee, 1990). 이와는 대조적으로 Chae(1999)와 Park(2000)의 연구에서는 양성성 유형이 오히려 높은 성 고정관념을 지닌다고 보고하며, Park, Kim과 Park(1998)의 연구에서는 두 개념간에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성역할정체감과 성 고정관념의 관계에 대한 일관된 경향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반복적 연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적 흐름으로 대두된 양성적 시각에서는 여성성이나 남성성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에 따라 남녀의 성역할은 변화하며 따라서 현대는 유능한 성인일수록 그 양자를 조합해서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Bem, 1975; Spence, Helmreich & Stapp, 1975). 이와 같이 성역할정체감과 성 고정관념은 그 사회의 문화적, 환경적 요소를 반영하며 성역할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이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Chang & Seo, 1991)는 점에서 현 시대를 반영하는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과 성 고정관념의 변화 양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대학생들은 입시 위주의 타율적이고 수동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독립적인 생활양상을 확립하는 시기이며, 잘못된 성역할 정형화를 통한 성역할에 대한 획일화와 동질화는 대학생의 창조적이고 다양한 성역할에 대한 관심을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인간을 간호하는 간호사는 인간의 성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특히 성역할정체감과 관련된 중요한 발달 과업을 수립하는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올바른 파악을 통해 성 고정관념이 진보적인 방향으로 수정될 수 있도록 중재해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역할정체감 유형과 성 고정관념을 파악하고,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성 고정관념의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성역할정체감 유형과 성 고정관념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올바른 성역할정체감 확립과 진보적 성 고정관념의 수립을 위한 성역할 관련 간호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 유형과 성 고정관념을 파악한다.
2)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성 고정관념의 차이를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1) 성역할정체감

개인이 자기 자신을 얼마만큼 남성적 또는 여성적 성격 특성을 소유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Bem, 1975), 본 연구에서는 Lee, Kim과 Koh(2002)가 개발한 한국인의 성역할 정체감 검사 도구(Korea Gender Role Identity Inventory; KGRII)로 측정한 점수로, 양성형, 남성형, 여성형, 미분화형으로 구분된다.

2) 성 고정관념

성 고정관념이란 남성이나 여성을 인지 또는 평가할

계명대학교 | IP: 220.69.112.22 | Accessed 2016/03/17 10:22(KST)

때 그의 개인적 특성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단지 생물학적으로 남성 혹은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에 의거해서 사회적으로 규정된 남성적 특성 혹은 여성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는 상대적으로 경직되고 과잉 단순화된 개념을 의미한다(Kim, 1993). 본 연구에서는 Kim (1999)이 개발한 성 고정관념 검사도구로 측정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 고정관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 유형과 성 고정관념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임의표출법에 의해 대구시내 대학의 남녀 대학생 250명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연구자가 직접 훈련시킨 연구원 5인이 직접 대상자에게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각각의 도구를 연습시킨 후 직접자료를 수집하여 전체 250부를 배포함으로써 회수율을 높일 수 있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검사문항이 누락되었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한 5부를 제외하고 최종 245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 도구

1) 성역할정체감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를 성역할정체감 유형으로 분류하기 위해 Lee 등(2002)이 개발한 한국인의 성역할 정체감 검사 도구(Korea Gender Role Identity Inventory; KGRII)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양성성 이론을 기초로 한 한국인의 성역할정체감을 검사할 수 있는 도구이며, 이는 문항 개발 과정에서 기존에 개발된 도구의 문항들과 이들 문항 이외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성인들에게서 여성성, 남성성, 및 사회적 바람직성을 나타내는 성격 특성이라고 생각되는 문항들로 이루어졌다. 또한 남성성 하위척도 15문항, 여성성 하위척도 15문항,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15문항의 총 4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식 4점 척도에 응답하게 되어 있다. 남성성 문항은 활동성, 적극성 등과 같이 자기 주장적이며 성취지향적인 성격 특성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어, 통념적으로 남성에게 더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특성을 잘 반영하는 문항이며, 여성성 문항은 우리 문화권에서 통념적으로 여성적이라고 생각되는 감성적이고 수동적인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구성된다. 사회적 바람직성 문항의 경우는 대상자가 사회규범이라는 준거에 비추어보아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문항을 말하는데, 남성형과 여성형 특성을 초월한 바람직한 측면에 더 가치를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성역할 정체감유형을 분류하는 방식은 중앙치분류법을 사용하였다. 전체 응답자 집단의 남성성, 여성성 점수들의 중앙치를 준거로 하여 각 개인의 남성성, 여성성 점수가 둘다 이보다 높은 경우를 양성성 유형, 남성성만 높은 경우를 남성성유형, 여성성이 높은 경우를 여성성 유형, 둘 다 이보다 낮은 경우를 미분화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alpha=0.93이었으며, 각 하위척도에 따라서는 남성성 척도의 경우 0.92, 여성성 척도의 경우 0.84이었다.

2) 성 고정관념

본 연구에서는 Kim(1999)이 작성한 성 고정관념 검사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여러 개의 상호 독립성을 띠는 요인들로 구성된 복합성을 띠는 개념인 성 고정관념을 측정하기 위해 Kando의 M-F Scale (Masculinity-Feminity Scale) 64문항과 Osmond & Martin의 Sex Role Attitude Scale(SRA)의 34문항, 그리고 Brogan & Kutner가 개발한 성 역할 측정 지표 36개 문항 중 한국의 성인 남녀에게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문항 45개를 추출한 후,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한 5개의 요인(가정적 성역할, 직업 및 외형적 특성, 사회·심리적 특질, 지적 특질, 사회적 성역할)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Kim(1999)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0.70-0.83이었다.

본 연구에서도 신뢰도 분석을 통하여 신뢰도가 낮은 문항은 제외하고, 신뢰도가 높은 문항을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성 고정관념 측정 도구의 각 영역의 신뢰도를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정적 성역할 척도의 7문항의 신뢰도는 0.86이었으며, 직업 및 외형적 특성은 0.83, 사회·심리적 특질은 0.86, 지적 특질은 0.88, 사회적 성 역할은 0.92였으며, 전체 신뢰도는

계명대학교 | IP: 220.69.112.22 | Accessed 2016/03/17 10:22(KST)

0.89였다.

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4년 9월에서 10월까지였으며, 대구시내에 있는 대학에 재학중인 남녀 대학생들에게 연구자와 연구자가 직접 훈련시킨 연구원 5인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에 답할 의사를 밝힌 대상자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직접 기입하도록 한 뒤 회수하였다.

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과 성 고정관념을 비교하고,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라 성 고정관념의 차이가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자료의 분석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1.0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frequency)분석을 실시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둘째, 성역할정체감의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성역할 검사를 통해 남성성, 여성성의 중앙치를 구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응답자를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성 고정관념의 점수를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구하였다. 이때의 평균은 총점의 평균이 아닌, 5점 점수의 평균으로 나타내어 조사 대상자들의 성 고정관념 정도를 알아보기 쉽게 제시하였다. 넷째,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성 고정관념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전체 대상자의 성역할 특성에 따른 성 고정관념의 평균을 구하고 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으며, 추후 검증으로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를 성별, 연령, 전공계열, 종교에 따라 구분하고, 가정 환경요인으로 성장지역, 생활수준, 거주형태로 나누어 파악하였다<Table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이 105명, 여학생이 140명의 분포를 나타내었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21-22세가 42.9%, 23세 이상이 40.4%로 많이 차지하였으며, 전공별로는 자연계열이 57.1%로 많았고 인문계열은 42.9%를 차지하였다. 종교에 따라서는 남녀 각각 33.3%, 40%로 기독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ategory	Male(N=105)		Female(N=140)		Total(N=245)		x^2	df	p
		frequency	(%)	frequency	(%)	frequency	(%)			
Age	≥20	15	(14.3)	26	(18.6)	41	(16.7)	27.70	2	0.01
	21 - 22	28	(26.7)	77	(55.0)	105	(42.9)			
	≤23	62	(59.0)	37	(26.4)	99	(40.4)			
Major field of study	humane science	54	(51.4)	51	(36.4)	105	(42.9)	5.51	1	0.01
	nature science	51	(48.6)	89	(63.6)	140	(57.1)			
Religion	protestant	35	(33.3)	56	(40)	91	(37.1)	4.87	5	0.43
	buddhist	19	(18.1)	20	(14.3)	39	(15.9)			
	confucian	·	(0)	1	(0.7)	1	(0.4)			
	catholic	6	(5.7)	12	(8.6)	18	(7.3)			
	others	1	(1.0)	4	(2.9)	5	(2.0)			
	none	44	(41.9)	47	(33.6)	91	(37.1)			
Growth area	a big city	74	(70.5)	102	(72.9)	176	(71.8)	0.18	2	0.91
	a medium city	20	(19.0)	25	(17.9)	45	(18.4)			
	a farm village	11	(10.5)	13	(9.3)	24	(9.8)			
Living standard	very good	2	(1.9)	1	(0.7)	3	(1.2)	2.00	3	0.57
	good	52	(49.5)	72	(51.4)	124	(50.6)			
	moderate	45	(42.9)	63	(45.0)	108	(44.1)			
	poor	6	(5.7)	4	(2.9)	10	(4.1)			
Residence form	one's own house	84	(80.0)	117	(83.6)	201	(82.0)	0.51	1	0.47
	the others	21	(20.0)	23	(16.4)	44	(18.0)			

계명대학교 | IP: 220.69.112.22 | Accessed 2016/03/17 10:22(KST)

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가정 환경요인으로 먼저 성장지역은 대도시가 71.8%로 가장 많았고, 생활수준에서는 중상이 50.6%, 중하가 44.1%로 많이 차지하였다. 거주 형태로는 자가가 82.0%로 가장 많은 분포로 나타났다. 남녀별 분포가 유의하게 다른 것은 연령과 전공에서 나타났으며,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23세 이상의 비율이 더 많았으며, 여학생은 21-22세의 비율이 많았다. 또한 남학생은 인문계가 많았고, 여학생은 자연계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 성역할정체감 유형

1) 성별 성역할정체감 유형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의 분포를 파악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양성형의 비율이 28.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미분화형, 남성형, 여성형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성별 성역할정체감 유형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남성형의 비율이 32.4%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양성형의 비율이 31.4%를 차지하였다. 또한 여성형의 비율이 12.4%로 가장 낮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반면 여학생은 여성형이 29.3%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미분화형이 26.4%를 차지하였다. 여학생의 경우는 남성형이 18.6%로 가장 적게 나타내었다.

2) 연령별 성역할정체감 유형

연령별 성역할정체감 유형을 살펴보면, 각 연령간의 성역할정체감 유형 분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Table 3>, '20세 이하'와 '23세 이상'의 두 연령집단간의 성역할정체감 유형 분포의 차이를 파악한 결과, 두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x^2=8.20, df=3, p=0.04). 20세 이하인 경우 양성형과 여성형의 비율이 31.7%로 동일하게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미분화형이 14.6%로 가장 적게 차지하였으며, 23세 이상의 경우는 미분화형의 비율이 31.3%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여성형이 14.1%로 가장 낮은 분포로 나타났다.

3. 성 고정관념

1) 성별 성 고정관념

성별에 따른 성 고정관념의 평균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성 고정관념 전체 평균점수는 3.12점이며 여학생의 성 고정관념 전체 평균점수가 2.73점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 고정관념의 전체 평균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4>. 이를 다시 요인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가정적 성역할, 지적 특성, 직업 및 외형적 특성, 사회·심리적 특성에 관한 요인에서 남학생의 성 고정관념 평균 점수가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성역할 요인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성 고정관념 평균 점수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2) 연령별 성 고정관념

<Table 2> Frequency of gender role identity type according to sex

Type	Male(N=105)	Female(N=140)	Total(N=245)
	Frequency(%)	Frequency(%)	Frequency(%)
Androgynous	33(31.4)	36(25.7)	69(28.2)
Masculine	34(32.4)	26(18.6)	60(24.5)
Feminine	13(12.4)	41(29.3)	54(22.0)
Undifferentiated	25(23.8)	37(26.4)	62(25.3)

(x^2=13.31, df=3, p=.004)

<Table 3> Frequency of gender role identity type according to age

Type	≥20(N=41)	21-22(N=105)	≤23(N=99)	Total(N=245)
	Frequency(%)	Frequency(%)	Frequency(%)	Frequency(%)
Androgynous	13(31.7)	29(27.6)	27(27.3)	69(28.2)
Masculine	9(22.0)	24(22.9)	27(27.3)	60(24.5)
Feminine	13(31.7)	27(25.7)	14(14.1)	54(22.0)
Undifferentiated	6(14.6)	25(23.8)	31(31.3)	62(25.3)

(x^2=9.29, df=6, p=0.15)

계명대학교 | IP: 220.69.112.22 | Accessed 2016/03/17 10:22(KST)

<Table 4> Mean and SD score of sex stereotypes according to sex

Sex stereotypes	Male(N=105)	Female(N=140)	t(p)
	Mean(SD)	Mean(SD)	
Domestic sex role	2.99(.76)	2.39(.71)	6.25(0.01)
Social sex role	3.51(.39)	3.49(.32)	0.47(0.63)
Intellectual characteristic	2.81(.80)	2.35(.71)	4.75(0.01)
Occupational and external characteristic	3.15(.50)	2.70(.46)	7.19(0.01)
Socio-psychologic characteristic	3.14(.63)	2.73(.65)	4.90(0.01)
Total	3.12(.49)	2.73(.44)	6.39(0.01)

연령에 따른 성 고정관념의 평균을 살펴보면, '23세 이상' 집단의 성 고정관념 전체 평균점수는 3.02점으로, 다른 연령의 집단보다 성 고정관념 전체 평균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이를 다시 요인별로 살펴보면, 가정적 성역할, 직업 및 외형적 특성, 사회·심리적 특성에 관한 요인에서 '23세 이상' 집단의 성 고정관념 평균 점수가 다른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아 연령이 높은 집단이 더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적 특성과 사회적 성역할 요인의 경우 각 연령 집단간의 성 고정관념 평균 점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사후 검증(Sheffe test)한 결과 성 고정관념 전체점수와 가정적 성역할, 직업 및 외형적 특성에서 '21-22세'의 집단과 '23세 이상' 집단의 성 고정관념 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4.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성 고정관념

남녀 대학생 전체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성 고정관념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양성형, 남성형, 여성형, 미분화형의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성 고정관념은 5가지 영역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Table 5> Mean and SD score of sex stereotypes according to age

Sex stereotypes	≥20(N=41)	21-22(N=105)	≤23(N=99)	Total(N=245)	F(p)	Sheffe
	Mean(SD)	Mean(SD)	Mean(SD)	Mean(SD)		
Domestic sex role	2.53(.66)	2.50(.75)[a]	2.86(.83)[b]	2.65(.79)	6.20(0.01)	a<b
Social sex role	3.47(.32)	3.52(.35)	3.49(.37)	3.50(.35)	0.30(0.73)	
Intellectual characteristic	2.39(.71)	2.48(.82)	2.68(.76)	2.54(.78)	2.58(0.07)	
Occupational and external characteristic	2.81(.45)	2.81(.50)[a]	3.02(.56)[b]	2.89(.53)	4.80(0.01)	a<b
Socio-psychologic characteristic	2.83(.66)	2.81(.66)	3.04(.67)	2.91(.67)	3.15(0.04)	
Total	2.81(.42)	2.82(.49)[ab]	3.02(.53)[b]	2.90(.50)	4.68(0.01)	a<b

<Table 6> Mean and SD score of sex stereotypes according to gender role identity among male students

Sex stereotypes	Androgynous (N=33)	Masculine (N=34)	Feminine (N=13)	Undifferentiated (N=25)	Total (N=105)	F(p)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Domestic sex role	2.94(.74)	3.13(.70)	3.01(.77)	2.84(.88)	2.99(.76)	0.70(0.55)
Social sex role	3.51(.37)	3.56(.39)	3.47(.39)	3.48(.43)	3.51(.39)	0.27(0.84)
Intellectual characteristic	2.89(.83)	2.92(.70)	2.35(.76)	2.78(.88)	2.81(.80)	1.75(0.16)
Occupational and external characteristic	3.16(.48)	3.26(.41)	3.05(.50)	3.04(.62)	3.15(.50)	1.13(0.34)
Socio-psychologic characteristic	3.21(.59)	3.28(.54)	3.05(.71)	2.90(.70)	3.14(.63)	2.12(0.10)
Total	3.14(.48)	3.23(.40)	2.99(.48)	3.01(.60)	3.12(.49)	1.34(0.26)

계명대학교 | IP: 220.69.112.22 | Accessed 2016/03/17 10:22(KST)

성 고정관념이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남녀 각각의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성 고정관념은 5개 영역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Table 6>, 여학생의 경우 사회·심리적 특성 요인에서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라 성 고정관념의 평균 점수가 유의한 차이(p=0.01)를 보였는데, 미분화형의 사회·심리적 특성 요인 성 고정관념이 2.9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양성형이 2.50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사후검증(Sheffe test)한 결과 사회·심리적 특성에서 양성형과 미분화형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Table 7>.

또한 여학생의 경우 양성형과 미분화형의 두 유형간의 성 고정관념의 차이를 파악한 결과, 성역할정체감 전체 평균과 가정적 성역할, 지적 특성, 직업 및 외형적 특성, 사회·심리적 특성에서 양성형의 성 고정관념 점수가 미분화형의 성 고정관념 점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Ⅳ. 논 의

현대사회에서 청년기 남녀에게 매우 중요한 발달과제는 자신의 성에 부합하는 성역할을 발달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성역할은 남녀의 본래의 성차에 따라 달리 발달되기 보다는 전통적 성역할이 사회화된 결과로 나타난다(Park et al, 1998). 대학생활은 미래 사회의 주인으로서 그리고 한 가정 나아가 건강한 사회의 성문화를 만들어 가는 주체자로서의 정체감을 확고하게 형성해 주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의 성숙한 인간성의 개발을 위해서는 성차별주의에 기초한 성역할과 성 고정관념이 사회화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이 올바른 성역할정체감과 진보적인 성 고정관념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성 역할 관련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서 도움이 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 유형과 성 고정관념을 파악하는데 있어 성별과 연령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성역할정체감과 성 고정관념 관련 연구에서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성별과 연령을 제시하고 있으므로(Kim, 1999; Chae, 1999),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은 전체적으로 양성형의 비율이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나,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은 남성형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은 여성형이 가장 높게 나타나 현 사회에서 대학생들이 아직 전통적인 성역할유형화 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Park & Park, 1999; Park, 2000)와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성역할정체감을 비교한 연구(Park et al., 1998)에서 남학생은 양성형이 가장 많으며 여학생은 미분화형이 가장 많았다는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여학생이 여성형 다음으로 미분화형 성정체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위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며, 이러한 결과를 앞서 제시한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가 성역할 전통주의를 고수하려는 의식구조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전통적 성역할에 반대하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혼란을 느끼면서 성역할 특성의 분화가 늦어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연령에 따른 성역할정체감 유형 분포는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미분화형의 분포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연령집단으로 갈수록

<Table 7> Mean and SD score of sex stereotypes according to gender role identity among female students

Sex stereotypes	Androgynous (N=36)	Masculine (N=26)	Feminine (N=41)	Undifferentiate (N=37)	Total (N=140)	F(p)	Sheffe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Domestic sex role	2.29(.81)	2.21(.74)	2.56(.70)	2.43(.54)	2.39(.71)	1.61(0.18)	
Social sex role	3.57(.35)	3.46(.38)	3.50(.30)	3.43(.27)	3.49(.32)	1.32(0.26)	
Intellectual characteristic	2.33(.85)	2.15(.79)	2.35(.69)	2.49(.48)	2.35(.71)	1.18(0.31)	
Occupational and external characteristic	2.64(.57)	2.56(.49)	2.78(.44)	2.78(.29)	2.70(.46)	1.81(0.14)	
Socio-psychologic characteristic	2.50(.71)[a]	2.56(.57)	2.86(.74)	2.93(.44)[b]	2.73(.65)	3.98(0.01)	a<b
Total	2.67(.55)	2.59(.47)	2.81(.43)	2.81(.28)	2.73(.44)	2.00(0.11)	

계명대학교 | IP: 220.69.112.22 | Accessed 2016/03/17 10:22(KST)

미분화의 분포는 낮아지고, 양성성 유형의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는 Park(2000)의 연구와 결과와는 차이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23세 이상'의 연령집단은 곧 졸업을 앞둔 시기로, 대학 초년생에 비해 대학 졸업 후 진로와 직업, 결혼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더욱 혼란을 느끼면서 성역할정체감을 확립할 시기에 오히려 성역할 특성의 혼란을 경험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성역할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고 본다.

대학생의 성 고정관념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가정적 성역할, 지적 특성, 직업 및 외형적 특성, 사회·심리적 특성에서 더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2000)과 Park 등(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Brogan, Kutner(1976)의 연구에서 남녀의 성 고정관념의 차이는 노동 분업, 권력구조, 직업역할, 정치적 지위, 성역할 사회화, 성역할고정관념에 대해 여성이 더 진보적인 생각을 가졌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한국 대학생의 직업에 따른 성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Tak, 1995)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서 남성적 직업을 덜 남성적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이 직업에 대한 성 고정관념에서 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이 남성적 직업에 대해 진출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 밑바탕에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성 고정관념의 요인 중 사회적 성역할 요인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현 사회의 여성의 사회활동에의 참여와 정치적 참여, 부부간의 의사결정권에 대해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을 말한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수십 년간 여성의 사회참여 진출의 증가와 더불어 사회적 역할 변화와 가족구조의 변화가 대학생들의 성 고정관념을 형성하는데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에 따른 성 고정관념을 비교해 보면, 높은 연령의 집단이 가정적 성역할, 직업 및 외형적 특성, 사회·심리적 특성에서 더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냈으며, 지적 특성에서도 그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높은 연령의 집단일수록 더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다. 이는 Park(200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이러한 결과를 모든 연령대가 같은 대학시기를 거치고 있으면서도 연령이 높은 사람이 보수적인 기존 세대의 전통적인 성역할을 수용하고 있으며, 연령이 낮은 집단의 경우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보다 진보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성 고정관념과 관련된 연구에서, Kim(1999)은 한국인의 성 고정관념이 아직도 상당히 전통적인 견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편이고, 특히 남성의 경우에 그러한 양상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세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연령이 낮을수록 진보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즉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보다 진취적인 태도를, 또한 남성과 여성을 비교해 볼 때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이 큰 폭으로 보다 진보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여 주며, 이와 같이 대학생의 성 고정관념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보수적인 가치관을 지니며, 높은 연령의 집단이 더 보수적인 경향을 보여 성별과 연령에 따라 성 고정관념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성 고정관념은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Park 등(1998)과 Lee(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 주목할 것은 남녀 각각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성 고정관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학생의 경우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성 고정관념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여학생의 경우 사회·심리적 특성 요인에서 미분화형의 성 고정관념이 가장 높았으며, 양성형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양성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사회·심리적 특질에 대해 더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여학생의 양성형과 미분화형 간에는 성역할정체감 전체평균과 가정적 성역할, 지적 특성, 직업 및 외형적 특성, 사회·심리적 특성의 성 고정관념에서 양성형이 미분화형보다 더 진보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여성형과 여학생의 남성형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성 고정관념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가효(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이것은 성 고정관념의 정도가 자신의 전통적인 성유형을 채택,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성의 특성을 자신 속에 병합하거나 인정하는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성역할고정관념과 성역할정체감 유형의 관계는 성역할 연구에 있어서 양성성 모형이 제시된 이후로 양성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가장 완화된 성역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Kelly & Worrell, 1977; Bem, 1981; Cho, 1986; Lee, 1990)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계명대학교 | IP: 220.69.112.22 | Accessed 2016/03/17 10:22(KST)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주며, 양성적 성역할정체감이 청년기의 심리적 적응과 건강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실제로 양성성의 개념은 한 개인 안에서 긍정적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이 공존하여 균형을 이룬다는 의미로 급변하는 현대 사회의 생활양식에서 특히, 변화에 민감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청년들이 환경에 건강하게 적응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데 있어 기존의 고정 관념적인 성역할 범주에서 벗어나 보다 큰 성 역할 가능성과 적응 잠재력을 제공해 주는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다(Bem, 1974). 양성성 성역할 정체감을 지닌 사람은 성 고정관념에 따른 전통적인 성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행동할 것(Bem, 1975)임으로 성 정형화된 유형의 사람보다 성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심리적 자유를 가질 것으로 본다. 따라서 대학생의 성역할고정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정이나 학교, 사회에서 양성적 성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대학생들이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자신의 성별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에게 적절한 성역할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중재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성역할정체감과 그들이 기대하는 성역할 관념 간에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여학생들은 전통적으로 형성된 성역할고정관념을 반대하는 신념에도 불구하고 여성형과 미분화형의 성역할정체감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Park 등(1998)은 여학생이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형성된 성역할 고정관념을 반대하는 신념과 남성 중심의 현 사회를 반영하여 형성된 성역할정체감 간에 갈등으로 미분화형의 성정체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여자 대학생의 장래계획과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연구(Lee, 1983)에서는 많은 수의 여대생들이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대한 열망은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계획에 있어 가정에다 우선권을 두는 전통적인 양상을 보여, 여학생은 독립적이고 유능한 여성상과 가족의 필요를 감당해야 하는 전통적인 여성상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게 되므로 이중적 성역할을 지향하며 정체감 발달에 어려움을 느낄 뿐 아니라 발달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Jang & Kim, 1998). 따라서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성역할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파악하는 연구와 성역할정체감과 성 고정관념 간의 괴리를 완화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살펴본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된 성역할정체감 도구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으며,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성역할정체감 척도가 동시대의 사회문화가 규정하는 전형적인 성역할 특성을 근거로 하여 바람직한 성 고정관념을 남성성, 여성성 문항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급변하는 사회의 성역할에 대한 가치기준과 동떨어질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우리 실정과 문화에 맞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립된 한국인의 성역할정체감 검사도구(Lee et al., 2002)를 사용함으로써, 현시대를 반영하는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의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과 성 고정관념의 관련성에서 양성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다른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비해 가장 완화된 성역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의 성역할고정화 현상을 완화시키는데 양성적 성역할정체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표집대상은 대구시내 대학의 남녀 대학생을 임의표출법에 의해 선정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확대 해석할 때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 유형과 성 고정관념의 특성을 성과 연령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므로, 이외의 여러 요인을 고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과 성 고정관념은 서로 관련성이 있으며, 대학생의 성역할고정화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양성성의 성역할 특성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유지와 증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간호사들은 사회와 시대적 흐름에 따른 대학생의 성역할 태도에 대한 정보와 그들의 성역할정체감과 성 고정관념 특성에 익숙해질 책임이 있으며, 특히 성역할정체감과 성 고정관념을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다양하고 포괄적 성교육관련 교과내용을 개발하고 성역할 관련 상담이나 지도 방안을 계획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들 개개인의 성역할에 대한 특성들을 허용하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대학생들이 창조적이고 다양한 성역할에 대한 시각을 갖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계명대학교 | IP: 220.69.112.22 | Accessed 2016/03/17 10:22(KST)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역할정체감 유형과 성 고정관념을 파악하고, 성역할정체감 유형과 성 고정관념의 관련성을 검증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성역할 교육과 성 고정관념 교육을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자는 대구시내 대학의 남녀 대학생 250명이며,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정체감 유형으로 분류하기 위해 Lee 등(2002)이 개발한 한국인의 성역할 정체감 검사 도구(Korea Gender Role Identity Inventory; KGRII)를 사용하였으며, 성 고정관념의 측정은 Kim (1999)이 개발한 성 고정관념 검사 도구를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1.0 program을 사용하여 전산 처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은 전체적으로는 양성형(28.2%)의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성별로는 남학생은 남성형(32.4%), 여학생은 여성형(29.3%)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연령별로는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대학생의 성 고정관념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 고정관념의 전체 평균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p=0.01), '23세 이상'의 집단이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성 고정관념의 전체 평균이 유의하게 높았다(p=0.01).

셋째,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성 고정관념은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여학생의 경우 사회·심리적 특성에서 양성형과 미분화형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1), 양성형과 미분화형의 두 유형 간에는 성역할정체감 전체평균과 가정적 성역할, 지적 특성, 직업 및 외형적 특성, 사회·심리적 특성에서 양성형의 성 고정관념 점수가 미분화형의 성 고정관념 점수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상의 결과에서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 유형과 성 고정관념은 성별과 연령 간에 차이를 보여, 성별과 연령은 대학생의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과 성 고정관념의 관련성에서 양성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다른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비해 가장 완화된 성역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의 성역할고정화 현상을 완화시키는데 양성적 성역할정체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은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이므로, 성별과 연령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올바른 성역할정체감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해야 할 것이다.
2. 졸업생을 대상으로 성역할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여학생을 대상으로 여학생의 성역할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대학생을 대상으로 양성성 훈련과 양성평등의식 훈련을 활성화하여 성역할정체감과 성 고정관념을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성역할 관련 간호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 Consult Clin Psychol,* 42, 155-162.

Bem, S. L. (1975). Sex role adaptability; One consequence of psychological androgyny. *J Personal Soc Psychol,* 31, 634-643.

Bem, S. L. (1981). Gender schema theory: Cognitive account of sex typing. *Psychological Review,* 88, 354-364.

Brogan, M. & Kutner, A. (1976). Measuring sex-role orientation: a normative approach. *J Marriage & Family,* 38(1), 31-39.

Chae, H. S. (1999). *Correlations among sex role stereotypes, sex role identity, self-esteem and the perception of home economics education of students at middle and high school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Seoul.

Chang, H. K., & Seo, B. S. (1991). A Study on College Students's Attitude toward Sex-Role. *J Korean Life Science,* 1, 117-133.

Cho, I. S. (1986). *The study on the sex-role identity, sex-role attitudes and self-concepts of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계명대학교 | IP: 220.69.112.22 | Accessed 2016/03/17 10:22(KST)

dissertation, The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of Korea, Seoul.

Citron, H., & Kartman, L. L. (1982). Preserving sexual identity in the institutionalized aged through activities. *Activities Adaptation & Aging, 3*(1), 55-63.

Harffner, D. (1994). Sexuality and aging: The family physisian's role as educator. *Geriatrics, 49*(9), 26.

Jang, H. S. (1999). *Youth psychology.* Seoul: Hacjisa.

Jang, H. S., & Kim, T. R. (1998). *Develop-mental psychology.* Seoul: Parkyoungsa.

Kagan, J. (1964). Acquisition and significance of sex typing and sex role identity. Review. *J Counsel Clin Psychol,* 45, 1101-1115.

Kelly, J. A., & Worrell, J. (1977). New formulations of sex role and androgyny: A clinical review. *J Counsel Clin Psychol,* 45, 1101-1115.

Kim, D. I. (1993). *Sociology of Gender.* Seoul: Munemsa.

Kim, D. I. (1999). *Sex stereotype of Korean.* Seoul: Munemsa.

Lee, B. S., Kim, M. A., & Koh, H. J. (2002). Development of Korea Gender Role Identity Inventory. *J Korean Acad Nurs*, 32(3), 373-383.

Lee, I. R. (1990). *The Gender Stereotyping in Occupations and Sex Role Identity.*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The Han Yang University of Korea, Seoul.

Lee, J. H. (2001). *Sex-Role Types and Stereotypes of Students in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The Ewha University of Korea, Seoul.

Lee, J. Y. (1983). Sex-role identity, self-esteem, and marriage and career plans of university women in Korea. *J Asia Women*, 22, 87-97.

Money, J., & Erhardt, A. (1972). *Man and Woman, Boy and Girl.*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ark, E. O., & Park, Y. S. (1999). Sex Role Identity and Health Behavior among University Student. *Korean J Women Health Nurs*, 5(3), 362-378.

Park, Y. J. (2000). *A Study on Colleg Students' Gender[Role Identity & Its Relationship to Sex Streotype add Self-Consciousnes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The Sogang University of Korea, Seoul.

Park, Y. S., Kim, Y. I., & Park, Y. H. (1998). Sex-Role Identity & Stereotypes of Students in High School and College. *J Korean Soc Sch Health*, 11(1), 51-62.

Shim, M. O. (1991). *Variations of High School Girls' Sex Role Perceptio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Ewha University of Korea, Seoul.

Spence, J. T., Helmreich, R., & Stapp, J. (1975). Ratings of self and peers on sex role attributes and their relation to self-esteem and conceptions of masculinity and feminity. *J Pers Soc Psych, 32*, 29-39.

Tak, J. K. (1995). Occupational Sex Stereotypes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Differences based on Sex, Sex-role Type, and culture. *J Indust Organ Psychol*, 8(1), 161-174.

Yang, S. O., & Jung, G. H. (2002). Perceptional Difference of Sexual Image and Sexual Role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in University, Korea. *J Korean Acad Women's Health Nurs*, 8(2), 289-300.

Yoo, G. H. (1994). Sex - Role Development in Late Childhood and Adolescence. *J Korean Acad Child Nurs,* 15(1), 127-144.

계명대학교 | IP: 220.69.112.22 | Accessed 2016/03/17 10:22(KST)

- Abstract -

The Study on the Gender Role Identity & Sex Stereotypes of College Students*

*Nam, Seung-Hee**·Kim, Myung-A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gender role identity and stereotypes an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role identity and stereotype among college students. **Method:** The subjects consisted of 245 college students in Daegu. Each participant was administered the KGRII of Lee, Kim, Koh(2002) and Sex Stereotype scales modified by Kim, Dongil(1999).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OVA, x^2-test, Sheffe test with SPSS 11.0 PC Program. **Result:** 1. For male students, masculinity type(32.4%) was most prevalent but for female students, feminity type (29.3%) was most common. 2. Female students were inclined to oppose traditional sex-role rather than male students. And the over 23 years old group tended to resist traditional sex-roles rather than other aged group. 3. The Androginy typed group had more progressive sex-role compared with undifferentiated typed group.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gender role identity and sex stereotype were difference in sex and age. And the androgyny typed group had more progressive sex-role compared with other gender role identity typed group.

Key words : Gender role, Gender identity, College Student

*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scientific research scholarship of a graduate school of Keimyung University.
** Graduate student in master's program, Nursing College in Keimyung University.
*** Professor, Nursing College in Keimyung University.

계명대학교 | IP: 220.69.112.22 | Accessed 2016/03/17 10:22(KST)